

대선후보들 '대장정 피날레' 장소는?

문재인 '광화문'
홍준표 '대구 부산'
안철수 '대전',
유승민 '강남' · 심상정 '서울'

5·9 총선거는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5당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장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후보들은 22일간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느라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8일 밤 12시가 지나면 투표 독려밖에 할 수 없는 만큼 마지막 유세에서 인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 마지막 유세 장소의 상징성도 매우 중요하다. 투표 전날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층을 움직이기 위해서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의 이미지와 맞고 시민들도 다수 만날 수 있는 곳을 마지막 유세장으로 삼기 위해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도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마지막 집중유세 장소를 광화문 광장으로 정했다. 앞서 문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17일 마무리 유세를 광화문에서 가졌다. 시작과 끝을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8일 낮 부산과 대구를 거쳐 저녁에 광화문에서 집중유세를 가진 뒤 강남역으로 이동, 유권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가진 뒤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시작과 끝이 같은 콘셉트를 고려하고 있다. 홍 후보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일컫는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3월 중순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출마 선언식을 가졌으며 공식선거운동 첫 날에도 대구를 찾았다. 다만 선대위 내부에서는 부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자는 의견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측은 대전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는다. 무척 유세를 지칭하며 전국의 거점 도시를 누비고 있는 안 후보는 고심 끝에 대장정의 피날레 장소를 대전으로 정했다. 대전은 안 후보에게 매우 상징적인 도시다. 대전은 국민의당이 창당대회를 한 곳이기도 하며 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 거했던 곳이기도 하다. 미래를 상징하는 도시라 자신의 이미지와도 부합한다. 안 후보측은 대전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통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권자가 많은 강남쪽을 고려하고 있다.



유권자들과 하이파이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5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주영화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하이파이브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 후보의 선대위는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는 것을 확정해 놓은 채 홍대 거리, 강남 두 곳을 최종 저울질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기획하고 있다. 심 후보측은 최대한 유권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쏠

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에게 한 표를 던져달라는 호소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 유세 장소를 놓고 심 후보가 노동운동에 뛰어든 구로를 찾는 방안과 신촌을 찾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정운천 잔류... '보수의 핵' 되겠다

바른정당 탈당을 고려한 정운천 의원이 장고 끝에 잔류를 선택했다. 지난 4일 정 의원은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탈당을 유보한 뒤 지역민들과 1611명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고, 도민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준엄한 명령은 바른정당을 지키고,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보수의 핵'이 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승민 후보로부터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하지는 간곡한 이야기를 들었고, 따뜻한 보수를 살리는 길, 그 자체가 희망인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최종 잔류를 선택하면서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최근 며칠동안 바른정당이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마침표를 찍는 것 같다"며 "새로운 희망, 따뜻한 보수를 살리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바른정당은 포기하지 않고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이휘낼 것"이라며 "정운천이 전북의 기적이었던 것처럼 유승민 대선후보를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인재용 기자

文측, 안철수·심상정 겨냥 '사표방지 캠페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정병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6일 "투표참여 못지않게 사표 방지 캠페인도 매우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사표 방지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사표로 규정하고 표를 모아달라는 주문이다.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투표가 사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표를 모아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교체를 주장하는 정당이 있다.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정당도 있다"며 "그러나 정치교체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의 적임자이고 사실상 집권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그 열망과 기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것이 다른 데로 가면 오히려 개혁과 정권교체의 열망이 분산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세력과 정권교체 세력의 결집과 발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검증돼 왔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본인의 기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유용한 투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본부장은 선대위 차원에서 5월9일 오후 8시까지 '598 투대문(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뉴스1

'文 지시로 아들 특혜채용' 반박 증언 공개

文측, 동기 문상호씨 이메일 증언 제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7일 '문 후보 아들 문준용씨가 문 후보 지시로 고용정보원에 채용원서를 제출했다'는 미국 파슨스스쿨(파슨스) 동료의 익명 음성 증언을 반박하는 파슨스 동기의 실명 이메일 증언을 공개했다. 문 후보 측 박광은 공보단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할 것 같다"는 '문 후보 아들의 파슨스스쿨 석사 동기 문상호씨의 이메일 증언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가 문 후보의 지시로 고용정보원에 채용원서를 제출했고 입사하기에는 역

량과 능력이 부족했다'는 파슨스 동료 증언 음성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박 단장은 "국민의당이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터뷰에 등장하는 '가까운 동료'는 남성이며, 준용씨와 파슨스에서 2년 정도 유학을 같이 했고, 준용씨 얘기를 친 구들과 함께 들었고,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스스로 밝힌 문씨가 민주당에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이메일에서 "2008년 파슨스 디지털 테크놀로지 석사과정 입학한 한국인은 6명이고, 이중 남자는 문상호, 문준용, 그리고 A씨 3명이다. A씨는 중간에 휴학해서 2년간 함께 하지 못했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어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자신이 국민의당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할 것 같다. 실명 음성변조 된 가까운 동료가 여성이라고 해도 여성 동기 3명은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어서 인터뷰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인터넷에 가까운 동료와 이메일 인터뷰를 주선하겠다고 했던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이런 허술한 정치공작으로 촛불 대선을 오염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 준용씨의 대학 동문들 주장처럼 이걸 검증할 넘어선 인격살인이자 마녀사냥, 중대 범죄

행위다. 이번 정치공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당시 파슨스 석사과정 한 국인이 6명인지 등 문씨 이메일 내용의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씨 대학 동문인 건국대 시각멀티 미디어 디자인과 및 제품(산업)디자인과 00학번 동기 및 선후배 일동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당의 소위 파슨스 동료 증언은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이라며 "결코 자신의 배경에 대해 자랑하거나 떠벌린 적이 없고, 누구보다도 검소한 생활을 했던 친구"라고 주장했다. /뉴스1

내일 5·9 총선거 - 전북도민여러분께 전합니다

<p>“전북 못 찾기 위해 한표 꼭 행사하십시오”</p>	<p>“전북발전 교두보 마련 문재인 후보가 책임자”</p>	<p>“홍준표 후보와 함께 도민이 잘 사는 세상을”</p>	<p>“안철수, 미래 여는 첫번째 대통령”</p>	<p>“전북발전 위해 유승민과 함께 할 것”</p>	<p>“심상정에게 던진 표 미래를 위한 투자”</p>
<p>▶ 송하진 도지사</p>	<p>▶ 김춘진 민주당 도당위원장</p>	<p>▶ 김항술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p>	<p>▶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위원장</p>	<p>▶ 정운천 바른정당 도당위원장</p>	<p>▶ 오현숙 정의당 도당위원장</p>
<p>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2017년 5월 참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번 대선은 겨우 내 거리를 밝혔던 국민의 의지가 담긴 참여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보여주는 주권재민의 현장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가장 큰 힘은, 참여하는 국민, 실천하는 국민에 있음을 온 몸으로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부여한 위대한 권리를 새로운 시대,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써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 국민의 꿈을, 전라북도의 미래를 환하게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19대 대통령 선거에 꼭 참여하십시오. 먼 훗날, 우리의 역사가 2017년 5월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날로 기억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현명하게 투표하십시오. 투표장으로 나가십시오. 전북의 뒤를 당당히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십시오. 투표장에 나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p>전북도민 여러분, 촛불 민심은 국민 주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제19대 대선은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국민과 도민이 중 심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전북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느라,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먼저 인사탕평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간 전북 출신 장관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제3기 민주 정부가 전북을 홀대하거나 차별시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연계한 산업, 전북의 자산인 농생명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산업육성을 해내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는 지난 1991년 첫삽을 뜬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런히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청와대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를 통해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전북 선거대책위원장 김항술입니다. '전북의 사위' 홍준표 후보와 함께 전북의 미래를 위한 여정이, 이제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홍준표 후보 개인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과 자기 욕심을 지키려는 사람의 대결입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대한민국 보수우파와 자신들만 정 의고, 말없는 다수는 적폐라는 죄과와 의 대결입니다. 도민 여러분, 홍준표 후보는 벅스까지 철저히 '홍수저'입니다. 무학인 아버지와 문맹인 어머니 밑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점성도시라 싸갈 형편이 못돼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천형같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서러운 세월을 겪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전북의 사위' 홍준표 후보와 함께, 가진 것은 적지만, 착하게 살아온 우리 전북도민이, 정말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p>	<p>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 뽑아야 합니다. 개혁할 수 있는 지도자 뽑아야 합니다. 20년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래 산업, 미래 일자리, 전북에서 시작합니다. 전북의 혁신도시에 금융허브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을 미래 4차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전북 발전의 선두에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계과 패권주의를 없애고 전국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경유착 척결하고, 재벌 개혁, 검찰개혁 해내겠습니다. 이제 미래를 말할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50대 젊은 도전자인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저 김광수는 안철수 후보가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전북발전을 간절히 원하시는 도민 여러분! 과거 1당 독주의 폐해가 우리 전북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지속된 중앙부처의 전북홀대는 1당 독주의 폐해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4당 체제입니다. 어떠한 정당도 정국을 주도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우리 전라북도의 지혜로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연대 또는 연정의 시대를 피해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당에게 표를 끌고투 나눠주는 전략적 선택만이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이제 프레임에 바빠 1당에 표를 주는 광주모형을 벗어나 각 당에 균형적인 표를 주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실익을 추구했던 충청도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저 정운천은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오직 전북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들의 지혜롭고 전략적인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p>	<p>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1,700만 촛불이 만든 촛불대선입니다. 정권교체는 국민들께서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해 폐정산과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이 촛불혁명의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오랜 세월동안 민주당 정권에게 표를 줬습니다. 무조건 정권교체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발전되지 않거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똑바로 못하니 국민의당으로 회초리를 삼으셨지만 국민의당, 민주당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이제 '물자만 정권 교체' 식의 투표보다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청년의 일자리와 비정규직 없는,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심상정 후보에게 던진 표는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이루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한 만큼 과감한 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p>